

중국 정보기술 현황, 한눈에 보여줘

멀티미디어 '97 차이나(Multimedia '97 China)가 지난 4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차이나 큐신 인포메이션(China Quoxin Information)사 주최로 북경의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다. 이 전시회는 서양보다 뒤지고 있는 정보산업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중국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후원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는 의욕적인 행사이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이 전시회에서는 중국의 정보화 방향과 국내정보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기회였다.

변완수/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멀티미디어 '97 차이나(Multimedia '97 China)가 지난 4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차이나 큐신 인포메이션(China Quoxin Information)사 주최로 북경의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다. 올해 전시회는 2월에 열린 컴텍스 쇼와 분산된 덕분에 지난해 250개 업체보다 100여개가 작은 150개 업체가 참가했다.

정식명칭이 'Multimedia '97 China - The Third Annual International Exhibition of Technologies and Applications of Multimedia' 인 이 전시회는 서양보다 뒤지고 있는 정보산업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중국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후원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는 의욕적인 행사이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이 전시회에서는 중국의 정보화 방향과 국내정보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기회였다.

전시부분

전시 마지막 양일간의 참관을 통해 중국의 정보화 열기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한 좋은 계기가 되었다. 전시장 바로 옆에 숙소를 정해두고 있었기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아침 8시에 식사를 마치고 휴식을 위해 식당에서 나왔을 때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개관시간이 아직 2시간 정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시장 앞에 관람객들이 장사진을 쳤던 것이다. 이는 중국의 정보산업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참으로 대단한 열기였다.

전시장에 들어서자, 먼저 안내데스크에서 주최자 사무실을 찾았다. 초청장을 챙겨서 보내준 전시 해외협력 담당자에게 감사의 인사도 전해야 했거니와 전시전반에 관한 정보를 얻기에는 더할나위없이 좋은 곳이었다. 전시광고 차장 린 링(Lin Ling)은 5일간 약 6만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다녀갔으며, 중국의 정보인프라 수준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해주었다.

중국에서는 90년 이래 매년 160~200만대 정도의 PC가 보급되고 있으며, 이중 80% 이상이 멀티미디어 PC라고 한다. 따라서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PC에는 CD-ROM 드라이브가 장착되어 있고, VCD가 소개되면서부터 이 이용자들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94년 미국과 인터넷을 연결, 개설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 인터넷 이용자 가운데 80%는 기업이라고 하며, 인터넷 사용이 계속 급증하고 있어 매년 10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기업에 비해 개인 인터넷 사용자는 우리나라처럼 급속히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용료 부담때문이라는 것이다. 중국의 국민 정보마인드 활성화와 사회적 인프라 구축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앞서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역시 사회주의 계획 경제의 논리가 과학기술 분야에도 철저하게 적용되어 개인보다는 정부나 공공단체 우선으로 활발히 보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출품내용

전시장에서는 중국내에서 제작한 CD-ROM과 해외에서 수입한 콘텐츠들이 주로 전시되었다.

중국내에서 제작한 콘텐츠는 중국의 전통적인 정보원을 가공하여 주로 CD-ROM으로 제작한 제품들이었다. 중국백과, 유행복식, 삼국지, 고전문학, 중국미술전집, 중국고대사, 중국 고전음식, 중국제왕후, 손자병법 등을 애니메이션과 사운드를 섞어 만든 조금은 단순해보이는 것들이었다. 중국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교육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 탓인지 어린이 교육 매체나 컴퓨터게임, 엔터테인먼트도 다수 출품되었다. 이들 제품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제품보다 응용기술면에서 다소뒤떨어져 있었지만 풍부한 정보 자원과 양질의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응용면에서의 취약성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듯했다. 멀티미디어 구현방법은 주로 소리와 정지화상을 이용한 것이 많았고, 동화상으로 이루어진 것은 소수에 불과했다.

해외에서 수입한 콘텐츠는 DVD용 제품이 가장 많았는데, 이것은 주로 대만에서 들어온 제품이었다. DVD용 제품으로는 주로 영어학습과 일본어 학습용 CD-ROM과 영화나 노래방 CD가 주를 이뤘다. 특히 영화에 대한 이들의 관심은 지대해서, 이와 관련된 제품을 전시하는 부스에는 관람객이

전혀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장시간 한곳에서 관람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이 외의 제품으로는 일본제품으로 빔 프로젝터가 선보였고, DVD 플레이어 제품이 몇가지 선보였다. 또한 3D를 이용한 게임이 몇 종 소개되었고, 2층에는 인터넷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관람객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PC용 디지털 카메라도 몇 품 소개되었고, 미디어 전자출판 등의 제품도 선보였다. 우리나라 업체에서는 LG전자 현지법인에서 전자제품을, 두인전자에서 DVD 제품, Xteras가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출품하여 판촉활동을 벌였다. 두인전자는 올해안에 중국현지 공장을 북경에 설립할 예정이며, Xter는 1994년 이미 북경에 진출 현지공장을 가동하고 있었다.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전시품은 CEI 넷에서 출품한 20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었다. CEI 넷은 'China State Information 센터'가 1996년에 설립한 회사로, 주로 비즈니스 분야의 정보를 취급하는 회사이다.

이 회사는 IBM DBII를 이용하여 20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며, 이번에 출품한 제품은 중국에 있는 15,000개 회사정보와 30만개의 제품에 대한 정보를 수록한 CD-ROM 타이틀이었다. 또, 타이틀로만 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었다. 이 타이틀은 중국의 기업체 및 생산제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관계로, 관람객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다.

이번 전시회는 대규모는 아니었지만 중국의 멀티미디어 제품에 대한 수

준과 정보이용자들의 관심을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해주는 기회였다. 특히, 풍부한 그들의 정보자원을 활용한 제품들은 응용기술면에서 다소 뒤져 있었지만 정보인프라의 기반이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무런 장애가 되지않을 듯 보였다.

관람객 편의제공에도 각별

또한 학생에서부터 직장인, 주부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전시회를 찾았다는 점에서 중국인들이 정보산업 분야에 얼마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또, 관람객들은 전시된 제품 하나하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였다. 전시장 규모는 넉넉한 편이 아니었지만 구조나 배치가 관람객들이 편리하도록 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정보통신분야 전시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컴텍스의 영향으로 전시회 규모나 관람객이 예년보다 상대적으로 감소되었고, 인터넷에서 멀티미디어 구현이 거의 없었던 것과 관람객을 위해 홍보나 부대행사가 함께 병행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돌아오면서 풍부한 중국의 정보자원을 확보하여 국내에서도 활용하고 응용면에서 한발 앞서가는 제품을 개발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배가한다면 국내 멀티미디어 산업의 중국시장 선점에 해외 선진업체 못지않은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DK**